

# “부산 금융중심지 도약 위해 사람역량 키워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부산증권박물관 개소식 참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증권분야 첫 휴면재산 출연 의미**

“부산이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물적자본 투입뿐만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부산 증권박물관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부산 금융 박물관 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금융 이해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증권박물관은 국내·외 증권 실물 콘텐츠를 전시해 자본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문헌

금융당지에 설립됐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 박물관이 수도권에 위치해 부산 경남지역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부산에 개관해 접근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특히 증권박물관이 문헌금융당지에 자리잡아 인근에 위치한 화폐전시관, 자본시장박물관과 함께 경제 금융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부산이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적자본 투입뿐만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산증권박물관이 금융중심지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며 “미래세대가 부산증권

박물관을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현장을 점검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간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식에 참석했다.

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했던 주권을 실물로 인출한 뒤 명의개서 절차를 취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주주명부상 주주의 자격으로 대신 수령해 보관 중인 배당금과 배당주식, 무상증자 주식 등을 말한다.

이번 협약식으로 한국 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 과실 168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된다.

손 부위원장은 “증권분야에서 최초로 휴면성 금융재산이 출연돼 매우 의미가 깊다”면서 “출연된 휴면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이후에도 투자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만큼 투자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양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홈페이지나 유선 상담을 통해 실기주과실 유무와 반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부터 어카운트인포와 연계해 휴면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시중銀 BIS비율 15% ‘안정적’... 인터넷은행은 ‘하위권’

**국내銀 BIS 총자본비율 15.40%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 ‘안정적’**

**신한·우리 등 주요은행 14~16%  
카뱅 9.97%, 케이뱅크 11.85%**

국내 은행들의 자본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5.40%, 13.36%, 12.76% 및 6.

60%다. 전분기 말 대비 모두 소폭 상승하며 규제비율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모든 은행이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충족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비율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1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각각 9.97%, 11.85%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달 21일 5000억원 규모

의 증자 실시해 자본비율이 9월 말 대비 3~4%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62%, 12.25%, 11.37% 및 5.76%다. 전분기 말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상승했다.

모든 은행지주회사가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웃돌았다.

KB·하나·신한·농협 등 대형지주회사(D-SIB)의 총자본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한국투자지주는

10.9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한국투자지주는 카카오행에 대한 지분 매각으로 향후 은행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실적 악화와 무역갈등, 홍콩 사태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안정적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바젤3 시행 준비 및 자본비율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은행별로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KEB하나銀 하나머니 제공 등 개인형 IRP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의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Target Date Fund)로 선택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또 신규 금액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고객에게는 2만 하나머니, 기존 TDF상품 미보유 고객이 TDF에 100만원 이상을 추가 납입한 경우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TDF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고객의 은퇴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KEB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하는 고객들에게도 이전 금액 100만원 미만엔 1만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엔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KEB하나은행 원화계좌로의 이체 및 ATM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 손님에게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발 더 앞서가며 ‘손님행복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된 ‘2019 NH농협금융 이사 워크숍’에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 “미래성장 기반 구축, 선도금융그룹 도약”

**NH농협금융 ‘2019 이사 워크숍’**

NN농협금융지주는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컨퍼런스 홀에서 ‘2019 농협금융 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수 회장과 농협금융 이사, 계열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양호한 손익 달성에 대해 이사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이사 간 교류 및 젊은 직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4번째 기수로 활동하고 있는 농협금융의 사내혁신조직 ‘제4기 NH미래혁신리더’가 지난 7개월간 연구한 과제에 대해 발

표하고 의견 교환을 하며, 변화와 혁신에 대해 임직원이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조직의 체질개선과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사들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머를 통한 긍정과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신상훈 교수의 특강도 진행됐다.

농협금융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성장기반 구축과 선도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 신한은행, 캄보디아 간편결제시장 진출

**현지업체와 전자지갑서비스 출시  
모빌리티산업 서비스 기획 첫 사업**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모빌리티 업체 엠블(MVL)과 함께 전자지갑 서비스를 출시해 현지 간편결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전자지갑 솔루션을 개발해 MVL에 제공하고, MVL은 신한은행의 전자지갑을 자사 차량호출 앱인 ‘TADA’의 최우선 결제 수단으로 지정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사는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량 요금결제 등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공동 기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자지갑 서비스가 첫 사업이다.

기존 타사의 결제 서비스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앱을 구동해 요금을 결제해야 하는 등 사용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 신한은행의 전자지갑은 ‘TADA’ 앱 내에서 구동돼 도착 시 자동결제 되는 형태로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양사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차량, 거래, 운행, 위치 정보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오토론 및 소액신용대출 상품 등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모빌리티 업체 엠블(MVL)의 차량호출 앱인 ‘TADA’에서 신한은행의 전자지갑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신한은행

또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e-ky) 도입 및 전자지갑 사용자 확대 등을 통해 현지 법인인 신한캄보디아은행의 리테일 금융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은행 정지호 부행장은 “이번 MVL과의 전자지갑 제휴 서비스는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과 함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상품·서비스를 기획한 것”이라며 “단순한 서비스 제휴가 아닌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는 도전 사례”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